강북구 중증장애인 반려견 진료비 20% 경감 제도 만족도 및 효능성 조사

김 진 웅(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조 대 형**(대형동물병원), **박흥심, 박준원**(강북동물병원), **이춘랑, 김소희**

서 론

강북구는 2011년 7월1일부터 강북구 관내 21개 동물병원의 도움으로 강북구 거주 등록 지체, 뇌 병변 및 지적 1.2등급 장애인 반려견의 질병, 치료, 수술 항목에 대하여 20%감면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본 감면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동물매개치료를 이용하여 재가중증장애인의 심 · 신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본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지 조사는 첫째, 장애인들의 감면제도 만족도 둘째, 반려동물과 견주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효능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론

Ⅰ. 강북구의 장애인 현황 및 재활사업

12년 6월 현재 강북구 인구는 345,779명이며, 2월말 현재 법정 장애인 인구는 17,742명이다.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약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 및 뇌 병변 장애인이 11,101명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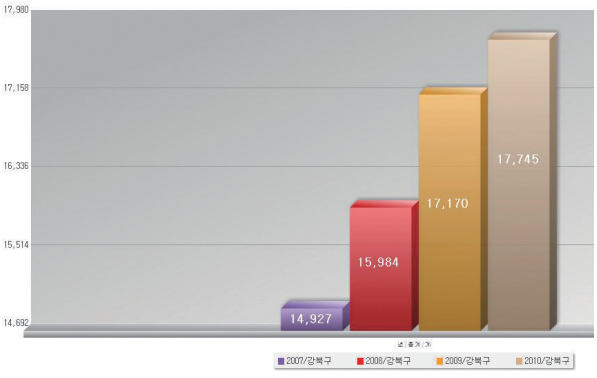


도표 1. 보건복지부통계포털 : 강북구 등록 장애인 현황(2007년–2010년)

강북구의 경우 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 지정 및 일괄관리를 담당하며,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는 60개이며 서울의 경우 강북구, 도봉구 및 양천구 3개구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활동 중이다.

그림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개념

Ⅱ. 중증장애인 반려견 진료비 20% 감면제도

강북구 거주 중증장애인 반려견 진료비(질병치료, 수술 및 예방접종) 20% 감면제도는 2011년 7월1일부터 강북구수의사협회(회장 조대형)산하 21개 동물병원의 무료재능나눔기부로 시행이 가능하였으며, 본 감면제도는 장애인의 심 · 신 재활을 위해 인의학과 수의학이 서로 협력한 좋은 선례,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유일한 사업에 강북구보건소 뿐만 아니라 강북구수의사협회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중증장애인 반려견 진료비 감면제도의 이용 대상은 지체, 뇌병변 및 지적 1,2등급 장애인이며, 이용 방법은 본인의 경우 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의뢰인(장애인)의 복지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관내 21개 동물병원과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동물병원 등에 부착하였다.

12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을 통해 강북구 관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본 감면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협조 중에 있다.

강북구 수의사협회장 조대형 강북구 보건소 사업 담당자 김진웅

강북구 수의사협회부회장 박준원 감면제도 이용 안내 포스터 제작 후, 부착

중증장애인 반려견 감면제도는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의 중앙지와 Tbroad(케이블 방송)를 통해 방송되었다.

"장애인 돕는 반려견, 진료비 할인해줍니다"

2011년 9월 8일 중앙일보2011년 7월 26일 Tbroad

Ⅲ. 동물매개치료(AAT : Animal-Assisted Therapy)

1. 정의 및 용어

동물매개(보조)치료는 Animal-Assisted Therapy의 영문을 국문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영문도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 치료(Pet Therapy)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적이다.

미국 Delta Society에서 정의한 Animal-Assisted Therapy를 국문화한 동물매개치료와 동물보조치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동물매개치료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매개"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직업군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단순히 치료적 환경에서 동물이 매개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물매개치료보다는 동물보조치료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의 사용이 더 좋을 것 같다.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인간의 소외감과 정신적인 압박감, 사회적 스트레스는 현대사회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을 반려동물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단순 하급개체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관계 연구에 의하면 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외상의 최소화, 건강한 정신건강, 학습기회의 제공 그리고 사회수준에서의 능력감 등을 향상시키고, 치료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매개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기원

1976년 북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Simon Davis는 약 12,000년 전 인간의 무덤에서 개가 인간의 먹이가 아닌 애정적인 관계였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동물과 인간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하여 왔음을 피력하였다.

이는 현대에 들어서 반려동물의 사육이 성행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인 교감형성이 되는 반려동물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사실이 오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물매개치료는 1792년 퀘이크 상인에 의해서 창립된 영국의 요크수용소에서 동물을 사용한 긍정적 강화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오늘날 치료형태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1859년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은 "애완동물은 환자에게, 특히 만성 질환자에게는 훌륭한 동반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환자들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고 환자들이 동물들을 돌보도록 권장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신과 의사였던 Boris Levinson은 전통적인 치료에 대한 부수적 필요로 동물매개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동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신의 애완견인 Jingles와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며 놀이를 통해 치료를 받지 않고도 마음을 열어가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면서, Jingles를 공동치료자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보조치료로 동물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사용한곳은 1942년 파울링 공군회복기 환자 보양소병원이다. 휴식과 긴장완화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농장동물과 함께 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경쟁정신을 일깨워주고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3. 효과

동물매개치료의 효과는 도우미적 효과, 신체적 효과 , 인지적 효과, 사회적 효과, 정서적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도우미적 효과

장애인도우미개(시각, 지체, 청각, 어르신도우미개 등)가 길안내하기, 물건 가져 다 주기, 소리 듣고 소리의 근원지로 안내하기, 어르신 시중들어주기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갖도록 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장애인들의 친구와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를 도와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

2) 신체적 효과

동물과의 놀이, 관리 등을 통하여 노약자의 소, 대근육의 운동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놀이와 산책 등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며 어르신들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 인지적 효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 동물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며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지적 호기심과 관찰력, 언어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4) 사회적 효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비판적이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무조건적인 수용이므로 자기개방과 대인관계에 어려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나 사회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상담역이 될 수 있다. 또한 조건 없는 사랑과 친화력의 습득과, 공동체의식의 향상, 긴장완화와 사회적 접촉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5) 정서적 효과

많은 연구에서 동물과 함께 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 심박수와 혈압의 안정 등 연구결과가보고 되고 있다. 또한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분개선과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의 활력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서 항상성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 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뉴욕 버팔로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주식중개인 중에 혈압이 높은 48명의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절반에게는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키우지 않도록 하였다. 6개월 후 참여 대상자들은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두었다. 결과는 애완동물을 키운 대상자들의 확장기 평균 혈압은 120에서 126으로 상승하였고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은 대상자들의 확장기 평균 혈압은 120에서 148로 상승하였다.

특히, 동물매개치료(활동)에서 동물의 역할을 분야별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는 동물을 제공하는 것에 여가활동에서 놀이와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대상자의 관절운동범위, 근력, 균형, 운동성을 증진 및 유지, 작업치료사는 동물에 대한 소유감은 의미있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많은 수의학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사람의 사회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잊게 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많은 연구가들이 동물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즉,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

4. 의료(재활)와 동물매개치료

동물매개치료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분야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겠다.

1) **예방차원분야** : 노령화, 독신자 증가, 인간의 고독감,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간의 소외감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다.

2) **재활 및 치료분야** : 동물매개치료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며, 노인성 질환, 성격장애, 지적장애 및 알콜 중독자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는 분야이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을 개선시키고 건강, 독립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한 연구에서 공공요양시설에서 살지 않는 938명의 Medicare(노령 장애인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우울하였고, 의사를 찾는 횟수도 적었다. 매개견이 있는 Medicare 환자들은 매개견이 없는 환자보다 의사를 찾는 횟수가 적었는데, 이는 애완동물이 그들에게 교류감과 안정감, 함께 놀아줌, 긴장이완 작용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동물매개치료는 정신 및 신체장애인, 정서장애아동,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울증 감소시키고, 사회적 교류 증가 및 사회적 행동들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1992년에 호주의 멜버룬에 있는 무료진료소에서 심혈관질환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5,74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의 사육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중성지방수준과 혈압이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Anderson 등도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성인 남성 보다 애완동물을 소유한 성인 남성이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여성 보다 애완동물을 소유한 여성의 혈압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2001년 30명의 남자와 3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애완견 소유와 고혈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참여 대상자들의 평균 혈압은 145/92mmHg이었다. 연구를 위한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유기견 보호소로부터 개를 분양 받아 키우도록 하였고 다른 그룹은 고혈압에 대한 약물 처방을 받도록 하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해진 후 대상자들의 혈압, 심박 수를 연구를 시작하는 날과 3개월 후에 각각 검사하였다. 연구 시작하는 시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한 후 혈압 수준이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3개월 후 두 그룹 간에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 약물처방을 받는 그룹의 대상자들은 활동 기간에 혈압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개를 키우는 그룹은 일상 혈압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심부정맥억압증 (Cardiac Arrhythmia Suppression Trial; CAST) I과 II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MI)을 가진 환자 중에 애완견을 소유한 환자(n=87; 1 death)가 애완견을 소유하지 않은 환자 (n=282; 19 death) 보다 1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애완견 소유가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 상태에 독립적으로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변수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9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애완견 소유가 1년 안에 사회성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킨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이 보고에 의하면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1일 활동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정신질환 입원환자들(n=230)의 경우 활동견이 참여한 AAT를 받은 경우와 치료레크레이션에 참여한 경우로 나누어 그 효과를 비교한 결과, AAT에 참여한 정신질환을 가진 그룹이 치료레크레이션에 참여한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Ⅳ. 설문 기간 및 대상

1. 설문기간

2012년 5월15일-5월30일

2. 설문대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중 본 감면제도 이용자 및 보호자

3. 설문결과

1) 참여 인원

총 13명(남5명, 여8명)

2) 참여 인원 연령대

(1)40대 이하(2명), (2)40-50대(2명), (3)50-60대(3명), (4)60-70대(4명), (5)70대 이상(2명)

3) 참여 인원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등급	인원	장애유형	등급	인원
지체	1	2	뇌 병변	1	1
지체	2	4	뇌 병변	2	1
지적	2	1	청각	2	2
언어	1	1	무응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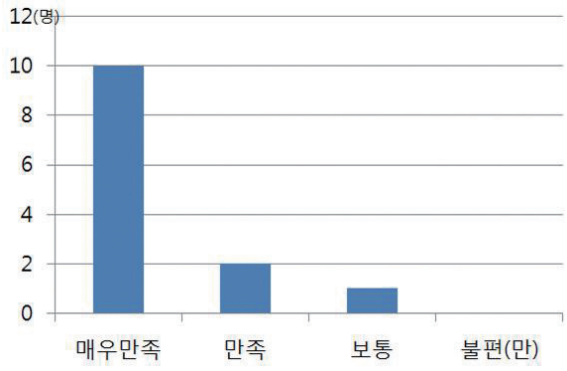
4. 설문대상자 반려동물 현황

반려견 12마리, 반려묘 1마리

Ⅴ. 설문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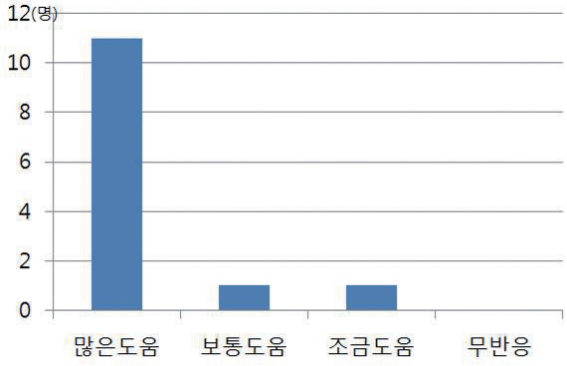
본 설문지 조사 내용 중 동물매개치료 효능성 관련 부분은 강북구보건소와 강북구수의사협회가 협의 하에 설문내용을 구성 실시함.

1. 본 경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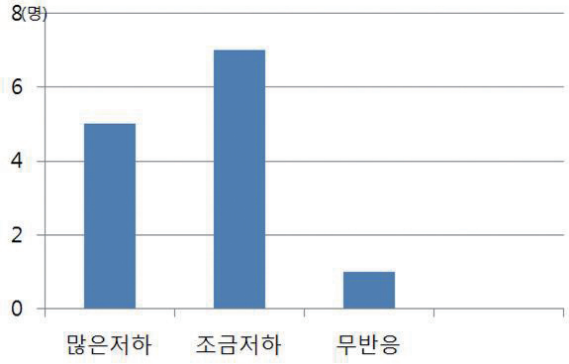


만족 2명, 보통 1명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미용 등 관련 부가서비스에 대한 감면제도까지 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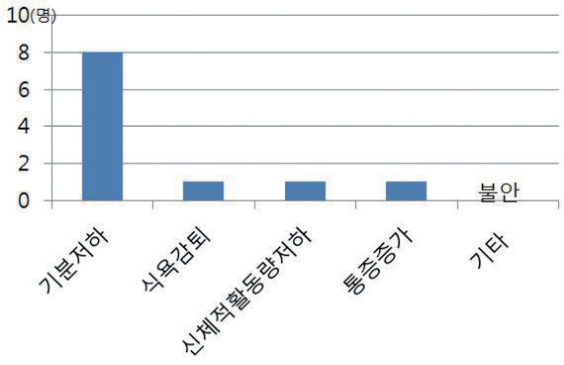
2. 본 경감제도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3. 반려견의 건강상태가 저하되는 경우, 귀하의 건강 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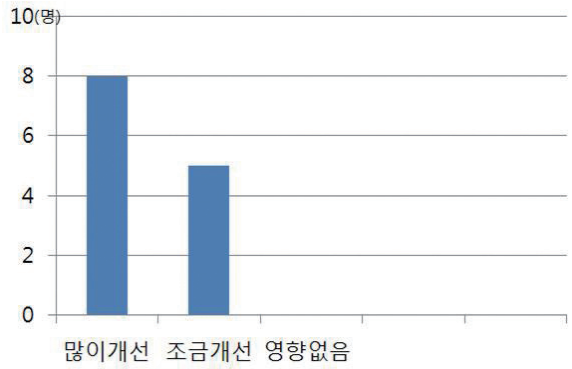


3-1. 귀하의 건강상태 중 어떤 부분에 저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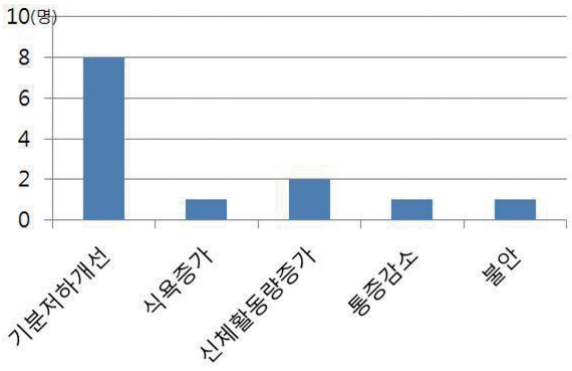


주)본 설문지에서 기분저하는 우울증을 의미함.

4. 반려견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귀하의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으신가요?



4-1. 귀하의 건강상태중 어떤 부분에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 및 논의

강북구에서 현재 실시중인 중증장애인 반려견 감면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효능성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10명, 76.9%), 만족(2명, 15.4%), 보통(1명, 7.7%)으로 조사되었다. 만족과 보통 응답자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미용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감면제도까지 원하는 것으로 설문에 답하였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처럼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반려견이 장애인의 기분저하(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총 13명 중 8명(61.5%)이 응답하였다.

현재, 강북구에서 실시중인 본 감면제도가 장애인의 심·신 재활 및 경제적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감면제도는 인의학과 수의학의 접목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반려동물과 삶을 동반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강북구에서 실시중인 중증장애인 반려견 감면제도가 빠른 시일 내 다른 시, 도에도 확대 보급되기를 바라며…

참 고 문 헌

- 김원.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외활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의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자연치료요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남숙. 지적장애인의 동물매개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2011.
- 김세영 · 윤가현. 노인의 건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한국노년학연구. 19(67-84). 2010.
- 홍주연 · 윤지연. 말을 이용한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놀이치료연구. 13(3). 99-111. 2009
- Giovanni Colombo at al. Pet therapy and institutionalized elderly: A study on 144 cognitively unimpaired subject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2(207-216). 2006.
- Ivan Dimitrijevićć. ANIMAL-ASSISTED THERAPY – A NEW TREND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AND ADDULTS. Psychiatria Danubina. Vol. 21. No. 2. pp 236-241. 2009.
- Marian R. Banks et al. Animal-Assisted Therapy and Loneliness in Nursing Homes : Use of Robotic versus Living Dogs. J Am Med Dir Assoc. 9(173-177). 2008.
- Beth L. Macauley. Animal-assisted therapy for persons with aphasia: A pilot study. JRRD. Volume 43. Number 3(357-366). 2006
- Elisa J. Sobo et al. Canine Visitation (Pet) Therapy : Pilot Data on Decreases in Child Pain Perceptio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ume 24 Number 1(51-57). 2006.
-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 http://www.kaatwa.org
- 한국동물매기치료연맹. http://www.kfaat.org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2012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안내.
- 서울신문. 강북구 장애인 반려견 치료비 지원. 2011년 7월 13일.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13015008
- 중앙일보. 장애인 돕는 반려견, 진료비 감면 해줍니다. 2011년 9월8일.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155482&cloc=olink|article|default.
- 아시아경제. 강북구 장애인 반려견 진료비 경감으로 장애인 재활 도와. 2011년 7월 13일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71221123787658
- 강북구. 2012년 6월 13일. http://www.gangbuk.go.kr.